

2. 조선전기의 향교실태와 순천향교

1) 향교의 정비와 제도의 확립

조선시대에 들어와 향교는 급속히 정비되고 발전되었다. 새로운 왕조의 통치이념인 유교를 보급시키고 유교적인 소양을 지닌 관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관학을 강화하였다. 서울에서는 성균관을, 지방에서는 향교를 정비하고 확충하였다. 중앙의 권력을 균형 말단까지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균형제를 정비·강화하면서 균형마다 향교를 세우도록 하였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성균관과 향교의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태종은 지방관이 힘써야 할 수령7사 가운데 하나로 '수명학교(修明學校)'를 넣어 수령 근무평가의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다. 1413년(태종 13)에는 각 고을의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여 향교의 발전과 운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였다.

중앙의 문교정책에 따라 각 고을마다 기존의 향교를 보수하거나 확충하였고, 향교가 없는 고을에서는 신설하였다. 향교의 보수와 신설은 수령, 교관, 지방 양반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수령은 흥학이라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향교설립에 앞장섰고, 교관들은 교육적인 관심에서 향교설립과 운영에 기여하였다. 또한 지방 양반들은 자기 고을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였다.

조선 초기에 '1읍 1교'의 원칙에 따라 수령이 파견된 균형에는 반드시 관학인 향교를 설치하였다. 균형제의 정비에 따라 균형의 병합, 이속, 치폐가 거듭되었으나 향교는 설치하도록 하였다. 1432년(세종 14)에 완성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초기의 향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문묘는 광주 북쪽에 있다. 국가는 각 도의 주부균현에 모두 문묘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를 향교라 부른다. 그 생도의 액수는 유수관 50, 목·도호부 40, 군 30, 현 15명이며, 제전·학전·노비를 각각 차등 지급한다. 도호부 이상은 모두 교수관이 있고 군과 현에는 교수관 혹은 교도를 임명하는데 만약 민호가 500호 미만일 때는 학장을 두어 생도들을 교훈케 한다. 뒤의 각 고을에서는 문묘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는다. (경기도 광주목)

이상에서처럼 1432년 이전에 수령이 파견된 고을에는 모두 향교가 설치되었다. 계속되는 균형제의 정비와 균형의 승강에 따라 향교도 소속 균형과 같이 치폐가 거듭되었다. 조선시대의 향교 연혁을 살펴보면 대부분 태조·태종·세종대에 건립되었다. 후 선조대에 창건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향교도 있으나 이는 기록의 착오이거나 아니면 중건을 창건으로 잘못 이해한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제도문물이 일단 완성되는 성종대에 편찬된 『통국여지승람』을 보면 모든 고을마다 향교와 문묘가 있음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늦어도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모든 균형에 향교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교는 제례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향교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의 축소형으로 공자를 봉안하는 대성전과 선현들을 봉안하는 동서무의 문묘와,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소인 명륜당, 기숙장소인 동서재(東西齋)를 기본구조로 한다. 그밖에 전사청, 고직사, 반노청, 포주 등이 부속건물로 붙어 있다.

고려시대의 묘학동궁 구조에서 문묘와 학교가 구별되어 갖추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였다. 다음과 같은 전라도 광산현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먼저 대성전을 지어 5성과 10철을 안치하고 또 동서무를 지어 70제자와 역대의 여러 현인들을 안치했다. 앞에는 명륜당을 두어 강학하는 곳으로 삼고, 동서쪽에 협실(狹室)이 있으니 동에 있는 것은 교관이 앉는 곳이고 서에 있는 것은 사마재로 했는데 이 고을의 상사가 우거하면서 학업을 닦는 곳이다. 또 동서에 재가 있으니 여기가 곧 유생들이 거처할 곳이고, 서재 뒤에는 전사청이 있고 동재 뒤에는 교관들의 사무실이 있다. 이밖에 신과 사람들이 모두 편안하고 스승과 학생이 집이 있으며 당과 창고와 부엌과 목욕탕이 각각 있을 곳에 있어 무려 60여 칸이나 되었다.(『친증동국여지승람』 권35, 광산현 학교)

공자를 주향으로 하는 문묘를 독립시킨 것은 고려와 조선의 유학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묘와 강당을 분리하여 교육장소로 강당인 명륜당과 학생들의 기숙처인 동서재를 따로 마련하였다. 명륜당이 만들어진 것은 조선시대에 이르러서였고, 이는 서울의 성균관을 모방한 것이다.

순천향교는 1407년에 부의 동쪽 7리에 건립되었다. 고려시대 향교의 위치와 일치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고려 때의 향교구조에서 벗어나 문묘와 학교가 분리되어 새로 만들어졌다. 순천향교의 건립과 건물구조도 다른 고을의 향교와 다름이 없다. 다만 중간에 여러 차례 이건을 하였다. 1550년(명종 5), 1624년(인조 2), 1780년(정조 4)에 이건하였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온 것은 1801년(순조 1)이었다. 이건의 원인은 풍수의 영향과 함께 옥천이 범람하여 자주 수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향교의 기본구조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대성전·동무·서무의 문묘와 명륜당·동재·서재의 학교가 있고, 부속건물로 교직사(校直舍)가 마련되었다. 양사재와 풍화루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건물이다. 양사재는 1718년(숙종 44)에 부사 황익재가 주선하여 설립한 것으로 향교의 교육기능을 대신하였다. 중도에 폐지되었던 양사재는 현재의 위치로 향교가 이건되었을 때 다시 복설되었다. 풍화루는 양사재와 같이 만든 것으로 향교나 양사재의 교육장소로 또는 고을 유림들의 모임장소로 활용되었다.

조선왕조는 문묘제도와 석전의식을 정비하였다. 우선 사전(祀典)을 크게 대·중·소로 나누었다. 종묘와 사직을 대사에 넣고, 공자에 대한 제례를 중사에 넣어 중시하였다. 향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은 바로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봉사하는 문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왕도 향교 앞을 행차할 경우에는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야 했다. 그리고 감사가 군현을 순행할 때, 수령이 도입하고 체임할 때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의례가 문묘에의 알성(謁聖)이었다. 유

순천향교 배치도

학의 상징인 문묘를 성묘로 신성시하고 문묘에 대한 훼손이나 위패의 도난 등을 각 고을 객사에 봉안한 전패(殿牌)에 대한 모독과 같은 강상지변(綱常之變)으로 간주하여 수령을 파직하거나 심하면 고을을 강습하기도 하였다.

문묘제도는 중국의 것을 수입하여 모방하였는데, 태종과 세종대에 문묘에 대한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태종대에 마련한 석전의례에 따르면 외방 향교는 각 도의 계수관·주부군·현으로 군현의 격에 따라 3등분하여 각기 대설·중설·소설이라 구분하였다.

이는 향교 규모와 그리고 봉안하는 위패의 수에 차이를 둔 것이다. 그리하여 계수관의 향교는 성균관과 같이 대성전에 공자를 주향, 4성(안자·자사·증자·맹자)을 배향, 공자의 수제자인 10철과 송나라의 6현을 종향하고 공자 문인 72자, 중국의 유학자, 우리나라 유학자를 동서무에 종사하였다. 주부군의 향교는 공자를 비롯한 4성·10철·송유 6현을 대성전에, 우리나라 유학자를 동서무에 봉안하였고, 현의 향교는 주부군에서 10철을 제외하였다. 순천은 조선시대에 도호부였으므로 향교의 규모는 중설에 해당되었다. 순천향교의 문묘에 봉안된 위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향교문묘 위패봉안 위치도



군현의 격에 따라 문묘종사자에 차등을 두는 것에 계속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조선 초기부터 중국 유현 가운데 부분적인 승출(陞黜)이 있었고, 특히 양명학은 수입될 당시부터 이황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명나라에 종사되었던 육구연·왕수인 등은 우리나라 문묘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유현으로 승무되는 사람들이 늘어나 조선 말기에는 모두 18명으로 늘어났다.(동현 18현)

문묘에 대한 제례는 정기적인 것과 부정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기적인 것은 2월, 8월 상정일에 거행하는 가장 큰 제례인 석전제와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거행하는 삭망분향제(朔望焚香祭)가 있었다. 부정기적인 것은 향교의 건물을 수리할 때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전후로 거행하는 이안제와 환안제, 문묘가 불시의 재난(도난·화재·뇌우 등)을 입었을 때의 위안제, 문묘에 위패를 새로이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때의 예성제 등이 있다. 대체로 석전제와 예성제는 수령이 친행하고 나머지 제례는 교임과 지방 양반들이 거행하였다.

16세기 후반 서원의 보급과 함께 향교의 교육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되어갔다. 이에 반하여 향교의 제례적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향교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성묘이고 가장 귀중한 것이 향사하는 예법이다.” 하였고, 또한 “향교는 제례에만 치중하니

공자의 사당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일부 나오게 되었다.